

안녕하세요. 경원대학교 미술대학입니다. 그리고 서양화과 졸업반이지요.

여기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은 2004년 1월에 있을 저희 졸업전(이하 '졸전')을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긴 어느 미술대학인들 매해 겨울, 연례행사인 졸전을 개최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여러 미술대학 졸업반 학생들과 비슷한 학사행정 일정에 따른 '행사'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형식과 내용에서 반성과 변화를 도모하려 합니다. 자칫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어느 미술대학의 졸전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부가 하나 같아 보이는' 그런 졸전은 좀 회피해보자는 취지를 갖고있습니다. 저희들의 출발점과 지향점은 단순명료합니다.

4년 동안 '예술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실험적이다.'는 기본 명제에 별 의문을 품질 않고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해야한다고 믿습니다. 해서 우리들의 졸전 역시 형식/내용에서 자유롭고 실험적이어서는 안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물며 졸전은 미술대학 4년을 정리하는 종합평가의 자리니깐요. 이 '행사'는 학교의 행사이기도 하지만 저희 졸업반 전부의 행사이기도 할 것입니다. 참고로 경원대 미대는 그간 몇몇 선배들에 의해 색다른 실험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졸전 자체를 거부한 경우, 졸전 후 미대생들의 실상을 작품화 한 경우, 그리고 2003년에는 [로얄 패밀리 컴온]이라는 주체하기 힘든 타이틀의 전시를 학교 밖 모텔 하우스에서 선생님들과 선배 동기들이 모여 추진한 적도 있습니다. 그 시도들의 결과가 비록 성공적이진 못했을 지언정, 포기해서는 안될 미술인의 미덕이 묻어난 실험들이었다는 데에는 이견을 달 수 없을 것입니다. 흠 학교 자라는 이 정도로 하죠. ^^;

우선 경원대 미술대 서양화과 졸전의 차별점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1. 기획주제 선정: 우선 대학 졸전에 '기획된 주제'를 도입했습니다. 4년 간 각자가 몰두해 왔던 관심사와 주제를 잠시 접고, 하나의 기획안에 수렴되는 시도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획안은 내부의 합의를 통해 채택되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채택한 주제는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이 익숙한 단어를 접하면, 모사 총기에 전투복을 착용한 레저게임을 떠올리기 쉽지요. 하지만 이 일반명사는 글자 그대로 생존경쟁을 의미하지요. 꿈에 부풀어 촉망받느(!) 전국 유수의 미술대학 졸업자들이 비슷하게 직면하게 되는 소외감과 위기의식을 직시하자는 의미에서 '서바이벌 게임'은 저희에게 매우 적절한 기획안으로 인식됐습니다. 좀 어렵나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얘기합시다. "미대 졸업을 코앞에 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기획 주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음...

2. 공동프로젝트: 졸업전시이니 만큼 졸업 당사자들의 출품작이 주를 이루어야 하지만, 여기서도 변화를 꾀보자는 것이 두 번째 차별점입니다. 해서 미술계에서 현업 활동중인 작가 및 평론가 5인을 '초대작가'라는 이름을 빌어 저희들과 함께 전시 엽니다. 이 역시 불필요한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행사를 '빛내고자' 외부 명망 작가를 영입한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초대된 손님 작가들의 지명도는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입니다. ^^;

아울러 초대작가와 저희 졸업반 학생들은 Free Market을 졸전 기간동안 진행합니다. 이것

은 당연히 ‘서바이벌 게임’이라는 기획 총론에서 파생된 하나의 각론이지요. 오셔서 많이 구경해주시고, ‘도저히 남 일 같지 않으시거든’ 저렴하게 내놓은 저희 작품들에 호주머니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부대행사로 출전 기간 중 ‘미술대학 출전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이 문제에 관한 이해당사자인 저희와, 이에 뜻을 같이해 오신 발표자 분들을 모시고 이 문제를 공론화할까 합니다.

3. 소박한 행사로서의 출전: 며칠전 경험담 하나를 들려드릴까요? 모대학에서 얼마 전 미술인의 동네, 인사동에서 출전을 개최했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는 잘먹고 왔습니다. 출품작들은 대충 훑어보는 척 하면서, 하객을 위해 내놓은 음식을 푸짐히 먹었고, 별로 실속은 없지만 두툼하게 제분된 출전도록도 한 부 ‘형식적으로’ 집어왔습니다. 물론 진지한 표정을 짓고 도록을 좀 들춰보긴 했지만 마음은 잿밥에 가 있었죠. -_-;; 들리는 말로는 뒷풀이도 융숭하게 했다더군요. 허참 거기도 따라갈 것들...! 여느 미술대학 출전이 이 맘때즈음 남겨놓은 평균치 인상입니다. 이 모두 졸업자들 혹은 우리 부모들의 지갑에서 나온 돈이지요. 저희 이렇게 하지 않을랍니다. 행사 준비 내내 사용한 금전 지출 내역도 모두 공개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대표적 ‘출전 거품’으로 지목되어온 오프닝 행사를 축소하려고 합니다. 우선 오프닝 음식을 약소화 하고 도록의 부피도 대폭 축소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하객들이 기대하는 뒷풀이는 할 겁니다. 단 여기도 조건이 있죠. ‘더치’ 페이 할 생각입니다. 물론 자진해서 ‘기부금’을 내주시겠다는 분의 의지를 가로막진 않습니다. 넘 짜지 않나요? 그렇긴 하지요. 하지만 값비싼 공밥을 무차별 제공해온 출전 관행을 이 참에 ‘견제’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떠세요? 긴 글 읽으시느라 수고 많으셨네요. -_-;;

많은 부분 저희 입장에 공감해 주신다면, 오프닝 때 자리 함께 하셨으면 하고, 정히 개인 일정 상 오프닝 참석이 어려우시다면 출전 기간 중 꼭 오셔서 방명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아차~! 세미나 때 오시면 더 감사하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2003년 12월

2004 경원대 미대 서양화와 출전 총감독, 조감독, 참여 졸업반 & 초대작가 일동

◎ 행사 일정

- 오프닝: 2004년 1월 9일 금요일 늦은 5시
- 출전기간: 2004년 1월 9일 ~ 1월
- 출전장소: 대안공간 풀(인사동)
- 세미나: 2004년 1월 16일(금요일) 늦은 3시